

기업윤리 브리프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기업윤리" 에서 매월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 신년사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로운 한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과 기업은 글로벌 경기 불황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1년에 이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144개국 중 19위로 전년대비 5단계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조사 대상 176개국 중 45위에 그쳐 지난해 보다 2단계 하락하였고,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도 27위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는 OECD 뇌물방지협약 준수 등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고 있어 윤리경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준법경영, 공익 침해행위 예방장치 등 반부패 통제시스템을 가동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들의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이후 국내외 최신 정보 제공,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윤리경영 모델 개발·보급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웹진형태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새해부터는 유인물로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베풀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새해는 애독자 여러분의 회사와 가정에 번영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성 배

윤리경영 2012년 평가와 2013년 과제

전문가 칼럼

김기찬(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윤경SM포럼 운영위원장)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부터 유럽의 경제 위기로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2년도 우리나라의 수출액 세계 순위는 세계 7위권이고, 무역 규모 순위는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8위권에 진입하고 있다. 무역규모는 2002년 세계 13위, 2006년 12위, 2009년 10위에 비해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비해 윤리경영의 성적은 오히려 뒤떨어지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패 인식도 지수(CPI)가 2008년 5.6점(40위), 2009년 5.5점(39위), 2010년 5.4점(39위), 2011년 5.4점(43위), 2012년은 5.6점(100점 만점)으로 45위로 떨어지고 있다. 2012년도 부패인식도는 OECD 34개국 중 27위이며, 점수도 OECD 평균(6.92점)에 비해 1.52점이나 낮은 편이다.

성공하는 길과 존경받는 길은 다르다. 강점이 있으면 성공하지만, 약점이 없어야 존경 받을 수 있다. 성공한 지도자의 최대 약점은 'INTEGRITY' 문제이다.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도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요소로 'INTEGRITY'를 이야기 한다. INTEGRITY는 '원전, 온전, 흠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벽한 인간을 요구하기보다 덕을 갖춘 정직성으로 충분하다. 진정성 있고 정직한 사람을 MAN OF INTEGRITY라고 한다. 결국 지도자는 덕을 쌓아야 한다. 예로부터 최고 인제는 '재주'와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재주와 덕이 모두 없으면 우인(愚人)이라 부르고, 재주가 덕보다 나으면 이를 소인이라 불렀다. 덕이 재주보다 나으면 군자라 했다. 재주와 덕을 모두 갖춘 이를 성인이라 불렀다. 새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 아무쪼록 이들이 모두 재주로 성공한 지도자가 아니라 덕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해에는 각 기업경영에서 '정직성/진정성'을 강조하고 깨끗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한층 많아져야 한다. 최근 기업인들이 보는 부패방지에 대한 인식도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 국내 기업인, 외국 기업인 부패인식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국내기업인의 40.1%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6%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윤리란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업의 윤리 경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고, 국가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단호한 의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과 윤리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최고책임자는 윤리 우선임을 강력히 선언해주어야 한다. 최고 책임자만이 조직 내에서 상존하는 이익을 지향하는 합목적성과 윤리성의 갈등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공기업의 조직책임자들은 청렴성지표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 청렴성지표는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도구이다. '측정 없이는 개선도 없다.' 최근 청렴성지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만큼 우리사회에 부정이 스며들 공간이 많아지고 있다. 끊임없는 평가가 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체중계에서 자기 체중을 재는 것이다. 이제 국민 개개인 스스로 도덕적으로 자유로워야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손이 두 개 부딪쳐야 소리가 나듯 윤리경영도 받는 자와 주는 자 모두 윤리적이어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기업과 국민이 함께 윤리의식으로 무장하여 깨끗한 사회구현의 모멘텀이 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한다.

“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체중계에서 자기 체중을 재는 것이다.
이제 국민 개개인 스스로 도덕적으로 자유로워야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국제 CSR 전략포럼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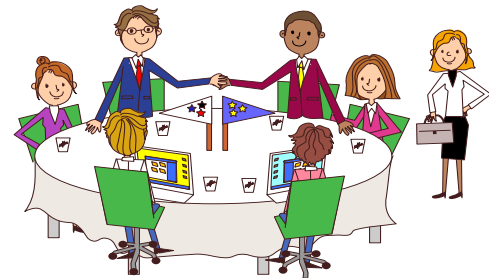
2012년 11월 27일, 서울 aT 센터에서는 2012년 지속가능경영을 되돌아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CSR 전략포럼"이 개최되었다. 제5회 기업가정신 주간을 맞아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제7회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을 포함하여 지속가능경영/CSR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기초 연설과 전략적 지속가능경영의 접근, 혁신적인 CSR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로 이루어졌다.

국제 CSR전략포럼의 기초연설에서는...

노스웨스턴 칼로그 비즈니스스쿨의 제이슨 사울 교수가 기초연설에서 '혁신적인 CSR 전략-공유가치와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CSR 업그레이드 전략과 실행'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이슨 사울 교수는 국내에 "CSR 3.0"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날 발표에서도 기업의 CSR 활동이 단순한 기부활동인 CSR 1.0(Charity)에서 전략적인 자선 활동에 해당하는 CSR 2.0(Strategic Philanthropy)을 지나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CSR 3.0(Social innovation)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 7회 지속가능경영대상에서는...

국내 유일의 정부포상이자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지속가능경영대상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대상에서 이체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업인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배동현 아모레퍼시픽 부사장이 기업인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속가능경영 실천 기관에는 SK하이닉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총 14개 기업·기관이 선정되었다.



B2B, B2C 기업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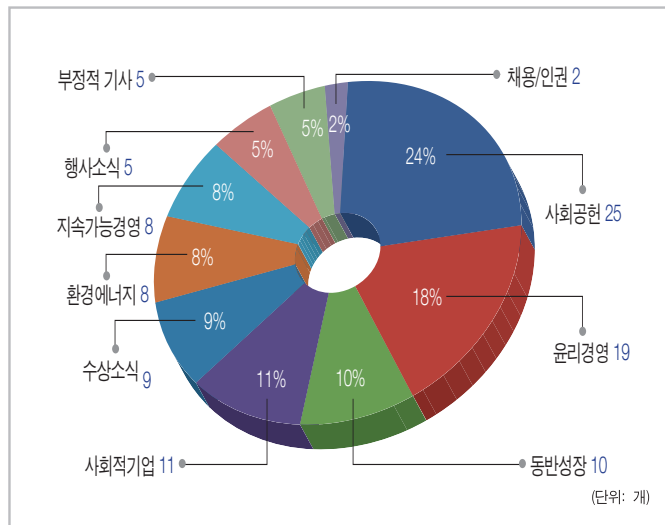
오후에는 기업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B2B 기업 사례로 인텔의 브라이언 곤잘레스 인텔 본사 글로벌 교육 담당 임원이 반도체 산업의 CSV 전략과 실행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인텔은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World Ahead'라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 컴퓨터 보급률이 낮은 국가의 학생들에게는 컴퓨터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교육방법론을 제공하여 해당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포르투갈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학생 1명당 PC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B2C기업의 발표에서는 존슨앤드존슨의 앤 리제프 시니어 매니저가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4단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포럼을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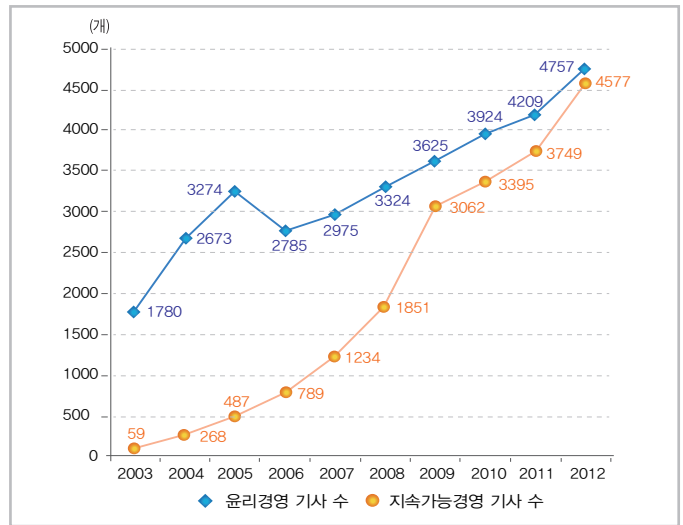
2012년 국제 CSR 전략포럼은 국내외 4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면서 CSR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기업 실무자들을 보면서 시혜성이 짙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던 국내기업들이 이제 CSR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고 혁신적인 CSR 전략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더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내는 혁신적인 CS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해본다.

2012년 기업윤리 국내 동향 결산

국내 동향 주제별 기사 수



기사에 언급된 숫자로 보는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



(검색엔진: 네이버 뉴스 검색, 2012년은 12월 20일 기준)

우선 국내동향에서 소개된 전체 기사의 수는 102개로 집계되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사회공헌으로 25건이 소개되었고 전체의 24%를 차지하였다. 이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투자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와 기업들이 그동안 펼쳐왔던 시혜성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면서 새롭게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회공헌에 뒤이어 윤리경영 관련 이슈들이 19건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였다. 기업의 윤리경영 강화 움직임과 반부패에 관련된 뉴스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 뒤를 이어 동반성장과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소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과 사회적기업 모두 정부의 규제 및 지원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뒤를 이어 지속가능경영/CSR에 대한 주제와 녹색 경영을 포함하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이슈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기업의 부패 문제에 대한 보도나 부패에 대한 높은 인식도를 담은 기사는 부정적 기사에 포함 되어 전체의 5%를 차지하였고, 채용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담은 기사는 총 2건이 소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12까지 최근 10년간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해보기 위해 인터넷 뉴스 검색에서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키워드로 검색해보았다. 검색 결과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 모두 기사에서 언급된 횟수가 크게 증가되었다. 윤리경영의 경우 이미 이전부터 통용되던 용어였음에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속가능경영이라는 개념은 표에서 나타나듯이 2003년부터 차츰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2012년에는 전체 기사에서 4,577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대비 약 7,600%가 증가된 수치이다.

분석컨대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질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들이 윤리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잘 실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들도 윤리경영/지속가능경영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리경영퀴즈

노스웨스턴 켈로그 비즈니스 스쿨의 제이슨 사울(Jason Saul) 교수는 CSR을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이것은 사회문제 해결과 비즈니스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제이슨 사울은 이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개념이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였다. 제이슨 사울의 저서 이름이기도 한 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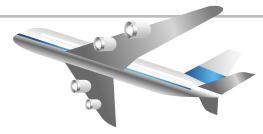
- 1) CSV(Creating Share Value)
- 2) 전략적 사회공헌(Strategic Philanthropy)
- 3) 경제민주화
- 4) CSR 3.0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 또는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 e-mail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담당자 문옥인(oim282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김주찬 님, 하화신 님, 박성우 님, 김선영 님 입니다. 상품은 보내주신 주소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채욱(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안녕하세요. 윤리경영이나 공기업 평가 부문에서 항상 우수 사례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CEO를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 친숙하겠지만, 다시 한번 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세계의 관심과 주목 속에 성공적으로 개항하여 개항 11주년이 되는 현재 전 세계 55개국, 184개 도시를 연결하며 국제여객 세계 9위, 국제화물 세계 2위 규모의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재무 건전성 면에 있어서도 8년 연속 흑자 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 특히 서비스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주관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ASQ)에서 7년 연속으로 1위로 선정되었고, 세계 공항 서비스의 전반적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는 해외사업에도 진출하며,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중동, 동남아, 러시아 등지에서 제2·제3의 인천공항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은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570여개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오늘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일하고 있는 3만 5천여 공항 종사자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고객과 국민의 신뢰와 성원을 바탕으로 개항 이후 단기간에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허브 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제2여객터미널 건설을 비롯한 3단계 건설사업(2009~2017)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건설팀 이외에도 자본투자, BOT 등 해외사업 범위를 다양화하며, 공항 주변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인천공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가능경영대상 기업인 부문 수상,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기업,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 최상위권 랭크되는 등 대외적으로 윤리 경영/지속가능경영이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영전략과 CEO 5대 경영철학(성장, 성과, 윤리, 인재, 사회적 책임)에 기반하여 경영성과와 사회책임의 조화를 바탕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공항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지속가능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가치체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동기부여자로서의 3가지 역할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치공유(Share the Value)”, “가치 내재화(Reflect the Value)”, “술선수범(Be a Role Model)”의 3대 역할모델은 구성원들이 공사의 지속가능경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행체계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지속가능성장, 사회적 기여, 환경윤리, 윤리 경영”의 4대 지속가능경영 틀에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와 감동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중요이슈에 반영하는 등 전사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참여를 지속가능경영의 기본 자세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역할모델 실천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통의 자세가 바로 공사가 지속가능경영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보다 더 폭넓은 시선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지속가능 경영, 사회책임경영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회책임경영 활동 중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 인천공항공사는 글로벌 수준의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엔 글로벌컴팩트(UNGC)에 가입하여 10대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공항전체의 UNGC 원칙 준수로 확대를 제언함으로써, “인천공항 Clean Compact 서약”을 통해 협력사, 상주기관, 항공사, 입점업체, 물류업체 등 공항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확대 전파하며 범 공항차원의 지속가능경영 확산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41개 협력사, 67개 항공사, 23개 상주기관, 63개 입점업체 등 35,0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항종사자와 공생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7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업

생태계에서 성공적인 플랫폼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기업생태계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가치(Shared Value)를 창출해낸 성공사례이자 우수사례로 꼽히며, 국내외 벤치마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공사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가치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인재는 물론 항공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학교 특성화사업,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 건립 및 운영지원 및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주요이슈인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갖고 사회적 기업인 다문화노래단 “몽땅”을 설립하고 법인화 및 예비 사회적 기업 등록을 완료하여 기업으로서 성공적인 자립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프사업으로는 공항종사자 및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늘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개원하는 한편, 해외 사업과 연계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으로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항공분야 무상교육 및 국제구호활동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인천공항의 기술노하우와 봉사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의 나눔 실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인천공항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사회복지, 환경지킴, 문화재보호, 국제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임직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참여를 어떻게 촉진시키고 있으신가요?

- 윤리경영은 CEO의 강력한 의지와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윤리경영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임직원의 윤리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사할 때부터 회사의 윤리규정과 윤리경영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는 사이버 윤리교육과 함께 분기별로 윤리경영, 청렴, 반부패 등과 관련한 주제를 정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윤리경영에 대하여 생각하고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윤리경영이라고 하면 재미없고 지루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한 편견을 깨기 위하여 재미있는 동영상, 청렴 공모전, 윤리퀴즈 이벤트, 명사 초청 강연회 등을 통해 직원들이 윤리경영에 대해 좀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윤리경영 측면에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나요?

- 오늘날 기업환경에 있어서 윤리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리 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는 윤리와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부정부패로 인해 한 순간에 몰락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윤리경영은 가장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사는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이라는 비전에 걸맞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임직원들의 더욱 강화된 윤리의식과 반부패·청렴의식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공사 뿐만이 아닌 협력업체, 자회사, 입주업체, 상주 정부기관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공항을 운영하는 특수한 근무환경이기 때문에 공사만의 윤리경영 시행으로는 인천공항 전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는 인천공항 운영의 핵심주체로서 IIA Clean Compact를 통해 천명한 바 있는 윤리경영·사회책임경영을 인천공항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각 협력사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 지원, 윤리경영 성과공유 채널 운영, 인천공항 상주직원이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미션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 공사는 유엔 글로벌컴팩트(UNGC)의 10대 원칙과 ISO 26000 7대 이슈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존경받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이라는 지속가능경영 비전에 맞춰 “지속가능성장, 사회적 기여, 환경경영, 윤리경영”의 4대 전략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10년의 눈부신 성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지금,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청과 소통의 자세를 견지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윤리경영 100문 100답



연말에 마주치는 윤리 문제 ▲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동안 거래를 해왔던 거래처나 고객사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눌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와중에 윤리경영 담당자로서 가장 빈번하게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연말 선물에 관한 것일 것이다. 여기서는 연말 선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민들을 살펴보았다.

1/ 연말 감사 선물 증정

Q 김원칙 부장은 회사의 주요 VIP 고객을 선정하여 연말 감사의 뜻으로 굴비 1세트(15만원 상당)를 선물하려고 한다. VIP 고객들은 거래 관계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들이라서 감사 인사 겸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윤리 사원에게 법인카드를 주며 굴비세트를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그런데 나윤리 사원은 김원칙 부장의 의도가 어떠한 뇌물성 선물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회사 비용으로 고객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서 전달해도 될지 궁금하다.

A 아무리 김부장의 의도가 뇌물성 선물을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굴비세트 같은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무리 상사의 지시이고 회사의 중요한 VIP 고객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비용으로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것은 미풍양속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윤리 사원은 상사와 상의하여 회사의 판촉용품이나 검소한 선물 등 통상적 수준에서 선물하도록 해야 한다.

2/ 기업 홍보용 고객사 선물 증정

Q 매년 연례행사로 연말이 되면 모든 고객사 대표를 회사로 초청하여 '고객사 송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녁 만찬 후 기념품을 모든 참석자에게 배포하곤 한다. 이 경우 1년 간 거래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기념품 선물(예, 20~30만 원 상당 물품)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객사 대표 전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

A 회사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회사의 회의에 참석한 인사의 격에 따라서는 고가의 선물이나 기념품을 주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사전에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해당 선물에 회사 로고를 넣어 배포하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선물이 아무리 고가라 할지라도 다수의 고객사에게 동시에 배포하는 것이고 회사 기념품에 로고를 넣어서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출처: "문답으로 이해하는 알기 쉬운 윤리경영 100문 100답", 대한상공회의소

2013년 1월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행사

국 내

포스트 2015 개발의제에 대한 동북아 청년 자문회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UNDP, UNESCAP, 고려대학교가 공동주관하는 「포스트-2015 개발의제에 대한 동북아시아 청년들의 자문회의」가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열린다. 1월 7~8일에는 동북아시아 청년 자문회의: "우리가 원하는 세상 2015"가 열리고, 1월 9일에는 자문회의의 결과물을 고위급 정부 대표 측에 "2015 우리가 원하는 세상" 선언문을 전달하는 ceremony가 있음.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UNDP, UNESCAP, 고려대학교

일시: 2013년 1월 7일(월) ~ 1월 9일(수) 09:00 ~ 12:30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주제: The World We Want

국 외

Responsible Investment Summit

브뤼셀에서 EVCA의 책임 투자 정상 모임이 2013년 1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실제 경제에서 사적 자본의 사회 책임에 대한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여명의 투자자들과 유럽에서 관련 정책을 만드는 대표자들과 함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자본의 관점에서 미래 투자 전략 수립에 대하여 토의해 볼 수 있는 기회임.

주최: EVCA(European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일시: 2013년 1월 29일(화)

장소: Renaissance Brussels Hotel, Brussel, Belgium

주제: Social Accountability in the Real Economy

링크: <http://www.evca.eu/responsibleinvestmentsummit2013/about.html>

Yes 준비!
 Ok 윤리!

술이원수~



직장내 성희롱, 조직의 팀워크를 저해합니다. 자료제공 : KYOBO

새로운 책 소개



1.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 펴낸곳: 국민권익위원회
- 출판일: 2012년 11월
- 정가/페이지: 11,000원/442쪽
-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2.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 저자: KOICA ODA 교육원
- 출판: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출판일: 2012년 9월
- 정가/페이지: 13,500/364쪽



3.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 저자: 월드워치연구소/박준식, 추신영 공역
- 출판: 도요세
- 출판일: 2012년 12월
- 정가/페이지: 28,000원/528쪽